



제3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 기 집

우 리 의 성 장 이
따 뜻 한 세 상 을
만 들 어 갑 니 다



우리는 지금 매우 빠른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에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항상 보다 새로운 사회,
보다 새로운 시대를 창조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아산(峨山) 정주영

비전 | 대한민국 비영리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국내 비영리 분야를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여 대한민국이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목적 | 리더십, 혁신적 사고와 경영능력을 갖춘 비영리 전문가 육성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비영리 경영(전략, 인적자원, 마케팅·모금, 재무·회계)과
리더십, 사회혁신, 캡스톤 프로젝트의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비영리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키우고 리더로서의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교육 콘텐츠 개발과 공유를 통해 비영리 분야의 역량 강화에 기여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비영리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교재 및 콘텐츠 공유를 통해 국내 비영리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기 발자취



면접 심사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교육과정 진행



해외방문연구조사



제3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기집

비영리 분야의 차세대 리더들을 만나다



강예돈
위스타트

2015년 1월, 나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시작하며 누구보다 넘치는 자신감으로 부풀어 있었다.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나는 '이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차세대 리더가 되리라! 그리고 비영리 분야의 변화와 발전에 반드시 이바지 하리라'고 다짐했다. 나의 다짐을 잊지 않기 위해 그 장소에 있던 '느린 우체국'에서 6개월 뒤에 보내준다는 엽서도 썼다. '마침 6개월 과정을 마칠 즈음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가'라며.

과정이 깊어지고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굳건했던 다짐은 사르르 녹아만 가고, 하염없이 작아지고 소심해지는 스스로를 발견해갔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을 보게 되었다. 동기들 한명 한명의 면면을 찬찬히 느끼고 바라보며, 그들이 지나온 세월의 흔적도 생각해보고, 드러내지 않지만 흘러 넘쳐서 알게 되는 내공의 크기에 한 번씩 놀라고 나를 비추어본다. '역시 나는 아직도 멀었단 말인가.', '나는 왜 이런 생각까지 하지 못했을까?', 많은 성찰을 주는 선생님이 29명이나 내 곁에 있다. 아주 가까이서 혹은 거리를 두고 나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선생님들은 6월까지의 쉽 없는 과정 속에서 동기였고, 친구였고, 스승이었고, 동반자였다. 받기만 한 내가 미안하고 부끄럽기 그지 없지만, 이러한 지면이 있어 감사의 마음을 조심스레 내밀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은 장면은 첫 수업의 충격이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난다. '전략', 처음 듣는 낯선 단어 앞에서 지금까지 15년의 경력에도 나는 멍청이 같았다. 눈앞이 깜깜할 정도로 따라가기 힘들었던 그 잊지 못할 수업을 받고, 지금의 내가 '전략사업부'에 있게 된 것이 아이러니하다. 모르는 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어렵지만 해볼만 한 일이고, 해내고 싶다는 의지의 용솟음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이후 다른 교육은 이제 그만 들으려 한다. 다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배운 많은 것들을 내 머리와 근육 속에 자리잡게 만드는 노력에 매진하려 한다.

비영리라는 커다란 공간 속에서 비슷한 방향에 눈을 맞추고 있는 우리 3기 동기들이 모두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는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순간 순간을 상상해보며, 매 순간 수업에 열정을 다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특별히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1조 영리한 비영리 팀원들에게 작고, 귀여운 사랑을 보낸다.



나를 직면하고, ‘사람’을 보게 된 시간



강현정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모집 때, 경력 조건에 맞지 않아 그저 바라보며 언젠가 그 안에 있을 나를 상상하며 기다렸다. 3기 모집이 내부 게시판에 공지됐을 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어디 한 번 부딪혀 보자’는 기분 좋은 떨림을 가지고 최종 합격의 소식을 들을 때까지 밀고 나갔다. 그만큼 간절히 기다렸던 교육이었기에 지난 6개월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내 삶의 중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아카데미 수업 일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일정을 진행하였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한 이후부터 ‘캡스톤’, ‘아산’, ‘일과 사람’, ‘전략’, ‘리더십’, ‘마케팅’, ‘회계’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지루할 틈도, 여유를 부릴 틈도 없이 완전 사로잡힌 지난 6개월이었다.

오리엔테이션 때 정진홍 이사장님께서 “생각을 되생각 하는 게 중요하다. 폭넓고 깊게 하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다시 생각하는 데서 생각은 완성된다. 다시 생각하지 못하면 인간은 인간다울 수 없다. 제도, 구조의 주체는 개인이며 결국 사람이 문제다.”라고 하신 말씀은 교육 과정을 넘어 ‘성숙된 인간’을 위한 길잡이 같은 말씀이었다.

‘교육 과정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알아가고 싶다. 교육 과정의 전반을 통해 나 자신의 생각과 경험의 한계도 볼 것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과 채움도 경험하게 되리라 생각한다.’가 지원 동기였다.

단언컨대, 지난 6개월은 다양한 모듈과 교육 과정을 통해 처음의 기대와 바람의 충족을 넘어, 나를 직면하고 대면하며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자기성찰의 시간이었다.

오늘로 비영리 분야에서 일한 지 7년하고 1일째 되는 날이다. 초등학교 6년 이후로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은 곳에 있었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대견하다. 소외된 이웃과 빈곤에 대한 문제에 있어 여전히 심장이 뛰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것은 비영리가 주는 매력이 아닐까 싶다. 때론 힘들고 지쳤지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교육과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생각을 되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나의 열정과 노력에 대한 평가나 대우가 조직 안에서 제대로 되지 않음에 대해 다른 생각도 많이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입장에서 조직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조직의 입장에서 필요한 나의 역할은 무엇일지 바라봤을 때는 더욱 인내해야 하고, 용기를 내고, 한 발짝 물러나야 한다는 것 깨달을 수 있었다.

매섭고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전략을 고민했고, 나른한 봄은 캡스톤의 뜨거운 토론이 함께 했고, 여름의 시작은 해외방문연구조사 기관 컨택을 위해 하루하루 이메일을 기대감으로 열어보았다. 해외방문연구조사를 통해 배움을 위한 생각은 열었으나 마음은 열지 못하는 나 자신의 한계에 직면도 하고 끊임없이 ‘사람’에 대해 생각해보기도 했다. 30대를 마무리하는 올해 가을은 캡스톤을 통해 처음으로 깊이 고민하고 비로소 보게 된 ‘사람’에게 귀 기울이고, ‘사람’을 생각하며 앞으로의 7년, 10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을 지난 6개월 동안 보듬어 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은 열정의 4조 복덕방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또한, 함께 한 3기 선생님들의 앞으로 계획과 나아감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며, 스스로를 대면하고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교수님들과 아산나눔재단 스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그래, 고생하길 잘했어!



고 영
월드비전

나는 욕심이 많은 편이다. 일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그리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있다. 그렇기에 쉽게 쉬지 못한다. 계속 끊임 없이 무언가를 배우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증세가 나타나곤 한다.

2014년을 마무리하고 2015년을 준비할 때쯤 나는 '내년에는 또 무엇을 시작하고 배우지?'라는 '계획 증후군'을 다시 만나고 말았다. 때마침 알게 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모집 정보는 나의 무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좀처럼 찾기 힘든 비영리 경영 전반에 대한 수준 높은 강의와 실전으로 배우는 캡스톤 프로젝트, 그리고 해외조사방문연구는 나로 하여금 '와우!'라는 탄성을 지르게 했고, 모집 마감 10분 전 지원서를 제출하는 기업을 토했다.

하지만 아뿔사! 내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바로 어마무시한 스파르타식 강행군 일정이었다. 당연히 업무 시간 이후 저녁시간 잠깐을 이용하여 수업이 진행될 것이라 믿었던 나의 얇은 생각은 다시 한 번 모집 요강과 학습 일정표를 확인한 후 바로 무너졌고, 덕분에 6개월 간, 빠진 시간을 보충하는 야근을 해야 했다. 매주 토요일 머리를 쥐어 짜고 리플렉션 메모를 적느라 '아무것도 안하고 폭 쉬는 주말' 따위는 잊어야 했다. 조별 과제는 어찌 그리 많은지. 회사에서 진행되는 회의와 업무에 못지 않게 더 많은 에너지와 열띤 토론을 나눈 우리 조 사람들과 함께 했던 것 같다.

어떤 때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다가 또 어떤 때는 ‘그래 조금만 참자, 고지가 바로 코앞이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친 몸을 이끌며 복춘로를 향해 터덜터덜 오르고 내려오기를 무한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내가 예전에는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직과 그룹 안에서 나는 어떤 패턴을 가진 사람이었던가, 전략적 선택을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협력하고 어떤 식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가, ‘마케팅과 모금과 재무회계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들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항상 ‘어떻게 하면 나는 더 나은 리더로 준비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았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내 삶으로 대답을 해야하는 ‘좋은 질문’을 얻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마라톤 경주의 시작점 앞에 서있는 선수가 된 느낌이다. 하지만 이 마라톤이 나 혼자만의 게임이 아닌 함께 할 든든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3기 동료들에 둘러싸여 서로를 격려하며 가게 될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힘들긴 하겠지만 외롭진 않을 것 같다.

지난 6개월을 뒤돌아 보면서 나는 다시 한 번 중얼거린다. ‘그래, 고생하길 잘했어! 근데 내일은 뭘 하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얻은 만남



권송미
사랑누리장애인단기보호센터

지난 겨울 면접을 앞두고 두근거림과 설렘을 담아 북촌 언덕을 향해 가던 그 발걸음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여름 시원한 냉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그때를 회상한다. 대전에서 서울까지 일주일에 2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향하던 나는 항상 소풍가는 마음이었다. 가끔은 기차를 놓쳐 동동거릴 때도 있었고, 일에 치여 기차 안에서도 노트북만 타닥거릴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소풍가는 마음이었던 것은 아카데미를 통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얻은 첫 번째 만남은 '좋은 교수님과의 만남'이었다. 각 모듈 교수님들의 강의는 역시 최고였다.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영리 분야의 전략, 마케팅 등을 포함한 생소한 분야가 사실은 내가 속한 비영리 분야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모든 강의를 경청하였다. 주옥 같은 명강의를 펼쳐주신 모든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두 번째는 '애증의 캡스톤'과의 만남이다.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캡스톤은 생각에 생각을 잇도록 만들어 준 시간이었다. 팀원간 논의가 뜨거워질 때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안절부절 하다가도,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통해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면서 얻은 기쁨은 말할 수 없는 성취감을 가져다 주었다. 늘 좋은 사람이고 싶었는데, 좋은 사람 대신 좋은 리더가 되고 싶어지고, 어떻게 해야 좋은 리더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해주었다. 이끌어주시는 김상범 교수님과 2기 양선희 선생님께서 리플렉션 메모에 남겨주셨던 말씀들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되짚어 보게 하고,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위로가 되어 캡스톤 수업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다른 시선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세 번째로는 ‘3기 선생님들과의 만남’이다. 각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시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을 아카데미 수업기간 동안 만나면서, 한분 한분이 스승 같았다. 따뜻한 배려, 다정한 위로와 칭찬, 핵심을 바라보는 혜안, 눈부신 업무 성과, 그리고 좌중을 휘어잡는 리더십과 조용히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을 한분 한분 선생님들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

마지막은 ‘나 자신과의 만남’이다. 배움을 통해 정말 많은 것들을 마음에 담았다. 이 배움이 내 일과 삶에서 어떻게 녹아져 나다운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지 아직도 긴 시간 고민해야 하겠지만, 내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아프고 찢기고 상처받고 새살이 나고 회복되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 약점을 민낯과 같이 만나볼 수 있었다. 아카데미의 6개월은 그냥 헛되이 흘러간 시간이 아닌, 조금은 쓰지만 약이 되고, 나를 회복시키는 힘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나는 내 자신과 오롯이 만날 수 있었다.

해외방문연구조사를 무사히 마치고 마지막 발표를 앞둔 지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얻은 만남 하나 하나가 소중해진다. 이 소중한 만남이 이제는 내 안에서 숙성되고 발전되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지 너무나 궁금하다. 두근두근 설레던 그 첫날처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꾸려가시는 모든 스태프분들과 교수님, 3기 선생님들, 그리고 2기 멘토 선생님들 모두 모두 감사하다.



디딤돌 한 개를 내려놓다



김용한
더 나은 세상

2014년 겨울, 한 직장에서 14년간 우직하게 한 길을 걸어오던 나는 현장의 경험을 학문적으로 정리하며 검증받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 속에 가득했다. 업무 특성상 1월과 2월은 해외출장으로 출석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지만 2015년 내 삶의 중심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두고 끝까지 여기에 맞추겠다는 결심을 하며 출발하였다. 회사 업무량의 무거움에도 시간이 되면 과감하게 컴퓨터를 종료하고 동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매몰차게 사무실 문을 나섰다. 배운 것을 속한 조직에 돌려주는 것만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수업시간도 중요했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조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나에게 큰 학습이 되었다. 나는 속한 조직에서 주로 말을 해야하는 입장이었는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는 가능한 많이 듣는 태도를 가지려 했다.

쏟아지는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배운 것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집중하였다. 원래 메모는 열심히 했었지만 그 양과 내용이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동안 더욱 증가했다. 과거의 상황과 결정을 회상해 보는 물론, 온·오프라인 기사에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고, 나만의 이해를 글로 써보는 노력을 하였다. 이를 통해서 파편화되어 있던 내용들이 구슬로 꿰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관리자로서 어떤 시각을 갖고 조직을 바라보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지 정리할 수 있었다.

도서구입에 따른 지출도 많이 늘었다. 강사님들은 물론 동료들의 추천 도서도 많이 도움이 되었고 최대한 읽어내려고 노력을 하였다. 당장 읽지 못하는 책들은 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앞으로도 읽어 나가겠다는 계획도 세워 진행하고 있다. 경험적으로만 알고 있던 내용이 강의와 책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내가 알지 못하던 영역과 트렌드에 대해서 접하게 되면서 관심을 세우게 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해외방문연구조사는 내게 좋은 인생의 친구와 선배를 만들어 주었다. 업무의 특성상 해외활동이 잦은 내게 해외방문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크지는 않았지만 업무와 얹히지 않은 분들과 특정한 미션을 가지고서 약 10 일동안 여행과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팀원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 해 주었고 자신의 욕망을 잘 조절하며 서로를 잘 배려하여 서로에게 멋진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추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자 수확이었다.

어느새 6개월이 모두 지나갔다.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인생의 이치이지만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난다. 그러나 뿌듯함도 상당하다. 마음의 부자가 되었다. 자동판매기처럼 무엇이든 도움을 요청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네트워크를 얻었으며, 학문적으로 조언을 해주실 교수님들을 알게 되었고, 그 동안 몸으로 체득한 것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게 된 것은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 지금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부자인 것 같다.

이 디딤돌을 딛고 일어서 그 디딤돌을 또 다른 누가 딛고 올라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과업으로 다가왔다. 꾸준히 익히고 나누어 사회가 더 나아지는 데 기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김은녕
청소년이 아름다운 세상

쌀쌀한 바람 사이로 스며든 따스한 햇볕이 좋았던 토요일, 고즈넉한 분위기의 안국동 언덕 위에 아산나눔재단에서 진행된 면접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쉽티가 가진 경쟁력이 무엇이나.”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아이들이 자신의 강점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시작하는 나의 각오 또한 그러하였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자리를 틀기까지 10년. 그 동안 쏟아 부은 시간과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높이뛰기를 하기 전 숨 고르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 나와 조직의 강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삶의 현장과 일터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고민하고 싶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온 활동가들 앞에서 가슴을 여미는 숙연함까지 들었다. 주 2회 만남이 너무 아쉬울 만큼 배우고 싶고 존경하는 활동가들을 알게 된 것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마음으로 이어지고 눈으로 반기는 팀원들과의 만남은 처진 나의 어깨에 힘을 주었고,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얼룩진 답답한 현장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우리의 별거벗은 모습을 애정으로 감쌀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캡스톤 과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주말도 반납하고 모여서 논의하고 교수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면서, 배움의 열정뿐 아닌 과정의 중요함을 깨달았다. 우리의 열정과 몰입으로 만들어진 캡스톤은 참으로 많은 눈을 뜨게 하였다. 팀과 조직 안에서 내가 발휘하는 리더십이 어떻게 긍정적인 방법으로 도움이 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에 나가는데 기여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나 조직의 리더 역할이 조직을 바람직하게 이끄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기대했던 해외방문연구조사에서 우리 팀은 참으로 고맙고 아름다운 사람들임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역시 사람이구나, 사람이 희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그 동안 조직에서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내지 못한 나의 모습을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였다. 부족하고 뻑뻑한 스케줄이었지만, 모든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정말 신나고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었다. 가슴이 탁 트인 넓은 공간을 많이 걸으며 하나씩 알아 갔던 팀원들의 이야기 보따리는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관 방문을 통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는것이 조직과 기관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오페라 한 편을 본 것 같이 서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느끼게 되어 팀원들에게 고맙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알게 되어 너무 행복하고 뿌듯한 마음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동지가 되고 친구가 되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민과 숙제를 함께 그리고 지혜롭게 풀어가는 활동가로 서로에게 오랫동안 좋은 모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나에게 남긴 소중한 유산,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다.



전략적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소중한 기회의 순간



김재훈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의 권유를 통해 처음 접하게 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은 그야말로 힘겨운 여정을 예견하여 순간 망설이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 현장에는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체계적인 교육과정, 다양한 분야의 비영리 종사자 인적 네트워크, 해외방문연구조사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로 다가왔다.

지난 6개월 동안 전략, 인적자원, 마케팅모금, 재무회계, 리더십, 사회혁신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의 강의는 다양한 NGO 분야의 차세대 리더를 꿈꾸는 나에게 전문성과 더불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다. 또한 아카데미 과정 내내 부담으로 작용한 캡스톤은 실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팀 프로젝트였다. 이를 통해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접근과 아울러 전략적 리더로서 올바른 사고방식과 협업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 해외방문연구조사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 활동가의 예술교육이 정부 차원의 권리로써 작동되고 있다는 점과,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는 의식수준이 인상적이었다.

6개월 교육과정을 마친 지금, 가장 아쉬운 것은 교육내용을 온전하게 내 것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리더로서 지식 전수의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교육 이수 내용을 떠올리며, 적용하기 위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모든 교육과정이 끝나고, 몸담은 기관으로 돌아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정신을 기반으로 배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인적 네트워크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그간의 감사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힘겨운 과정을 당당히 통과해낸 3기 동기 여러분, 특별히 3조 롤링에그 조원 여러분과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 끝으로 물심양면으로 밤늦도록 든든하게 지지해 주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수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짧았던 6개월, 영원히 기억될 나의 동굴



김정식
태화복지재단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간다

3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지원하기 전, 왜 3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이유를 명확히 하고 싶었다. 많은 이유 중 한 가지는 ‘비움’이었다. 비우기 위해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누구에게나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진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차세대 리더 양성 교육은 비영리 기관의 관리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였다. 모두들 어렵고 힘겨운 여건 속에서도 그 기회를 잡게 된 것은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마음과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른이라는 말이 주는 울림

“비록 서서히 땅거미가 지고 모든 노래 소리가 그쳤다 할지라도, 비록 친구들이 제각기 자기 수리 곳으로 돌아가고 너 홀로 외롭게 남아 지쳐있다 할지라도 비록 친구들이 제각기 자기 쉴 곳으로 돌아가고 너 홀로 외롭게 남아 지쳐있다 할지라도(중략), 새야, 오 나의 새야, 내 말을 들어다오. 네 날개를 접어선 안 돼!(생략)” 이사장님께서 읽어주신 타고르 「정원사」의 67편이다. 이를 통해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이사장님 말씀이 떠오른다. ‘이 시대에 진정한 어른은 있는가?’라는 질문이 내 마음에 큰 울림이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깊게 생각해보게 되었고,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내가 가슴 떨리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꿈틀거렸다.

현재의 나를 돌아보다

구체적으로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미션과 비전, 전략에 대해 고민하지 못하고 상황적인 일들에 내몰려 흘러가는 물처럼 여기까지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이 부재하고 그 부재함으로 인해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내면을 성찰하고 나의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나는 스스로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개척정신은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졌고, 지금은 전략을 갖춘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전략이 단순하게 언어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위한 해답과 결정을 현장에서 찾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출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6개월이 지났다. 그 중심에는 캡스톤 모듈이 우리 모두를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일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는 역동성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다. '경쟁이라는 공간 속에서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사려 깊게 배려하였는가'에 대해서 큰 좌절과 회복을 반복하였다.

6개월을 돌아보면 아쉽기만 하다. 더 재미있고 알차게 보낼 수 있었을 것만 같다. 충분히 배웠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외방문연구조사 과정에서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도 말이다. 6개월 간의 하루하루는 너무나도 특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다른 나 자신을 발견한 것'이 가장 의미 있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지 말이다. 교육을 마치려고 하니 내가 왜 어른이 되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신명나게 하게 된다.

올해 43살이 되었다. 평균 수명이 100살이라고 한다면 아직 절반도 살지 않았다. 아카데미의 6개월은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 경험이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계하는 데 있어 바람직한 지표가 되어줄 수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과 이유를 가지고 도전하고 개척해 봐!'라고 나 자신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김지민
솔바람복지센터

Good-bye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6개월 대장정의 마지막 수업이 있던 날 교수님의 마지막 인사말이었다. 굿바이의 어원을 설명하여 주시면서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우리를 향해 건네주셨다. 그 인사말을 듣는 순간 그 동안의 모든 과정들이 휘몰아치듯 빠르게 회상하게 되었고, 이 시간이 지난 후에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에서의 경험들이 앞으로의 삶에 축복이 되리라 느껴지는 마음 파스한 작별의 순간이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느끼며 마지막이 아닌 또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듯 그렇게 아쉬운 날이 지나갔다.

우연이 필연이 되다

우연히 한 사이트에 소개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을 보며 아카데미 소개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 그 중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의 간극이 무엇일 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며칠 동안 그 간극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궁금함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그렇게 우연한 기회로 나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시작되었다.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통한 경험들은 나 자신을 되돌아 보게 하였고, 현재 나의 모습과 마주 하며, 앞으로 나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아울러 나의 조직과 동료들을 바라보게 하며 비영리 분야에서 진정한

글로벌리더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내 삶의 필연적 과정이 되었다.

인연 그리고 고마움

2015년 1월, 어색하게 시작한 첫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29명의 동기들과 교수님, 그리고 항상 수업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팀장님과 매니저분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NGO와 기업이 정신이 만나면 우리 사회는 더 밝아집니다.” 교육과정 내내 나의 배움이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게 했다. 배우고 느끼며 직접 해보는 캡스톤 모듈에 이르기까지 익숙하지 않은 수업방식은 또 하나의 새로운 자극이 되었다. 늘 분주한 일상에서 무엇을 위한 분주함인지 깨닫지 못한 채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에 우선했던 나를 되돌아보게 하였다. 나와 다른 분야의 NGO 단체에서 일하는 동기들로 인해 내가 알지 못했던 분야의 정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세상 곳곳에서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 애쓰는 멋진 분들을 알게 되었다. 과정을 마치는 지금, ‘시작의 설렘과 첫 마음이 닳고 닳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학식에서의 다짐과 첫 마음을 상기하며 그 동안의 배움의 소중한 인연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모습으로 화답하고 싶다.



익숙함이 낯설어지고, 낯섦이 익숙해지는 시간



김태경
동방사회복지회

새로움이 주는 불편함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새로움과 그로 인한 불편함을 맘껏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아산나눔재단의 교육에 대한 배려와 투자도 새로웠지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들과 수업, 그리고 서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씩 만난 아카데미 3기 동료들과의 만남들은 모두 새로운 시간이었다. 유독 새로움이 주는 불편함이 많았던 초반이었다. 실무자 17년차 답지 않게 낮을 가리는 나에게는 여러 동기들과 모든 환경이 낯설고 불편했다. 새로움이 주는 불편함의 정점은 캡스톤 모듈이었다. 어떤 수업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지, 교수님은 어떻게 저런 말들을 쉽게 하시는지, 잘 이해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불편함은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마음과 긴장감으로 변하여 아카데미 내내 큰 원동력이 되었다.

상황을 품는 능력

그 다음 단계는 ‘복잡함’과 ‘어려움’이었다. 리더십과 관련된 여러 수업을 참여하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도 복잡하고 어려웠다. 특히 캡스톤 모듈을 통해 진행되는 조별 과제 수행 과정은 하나 하나가 어려웠다. 사람과 일을 같이 가져가는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다들 처해진 환경과 한계 속에서 과제들을 수행하고 성과를 내야 했기에 무척이나 어려웠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생각하고 정리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신기하게도 조금씩 생겼다. 아마 ‘상황을 품는 능력’이 나에게도 조금은 생기어서 가능하지 않았나

감히 생각해 본다. 물론 아직도 잘 정리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나에게 필요한지는 알게 되었다. 또한 다행히도 우리 조 복덕방이 중간발표 1,2차 때 성공한 작은 경험은 우리 조원들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서로의 상황을 품어줄 수 있는 작은 원동력이 되어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낮선 곳이 주는 편안함

해외방문연구조사 때 프랑크푸르트 뢰머 광장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느꼈던 낯선 곳에서의 편안한 기분은 아직도 내게 강하게 남아있다. 낯선 곳의 새로움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조금 멀리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이를 통해 조금하게 해결하려던 나의 어리석음을 돌아 볼 수 있었다.

해외방문연구조사 경험은 아주 특별했다. 유럽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의 소진과 심리적 지원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조직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와 그 내용들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특히 독일 비스바덴에서 만난 긍정주의 심리치료가 와 닿았는데, 비영리 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 성과만을 위해 달려온 나에게 '삶의 발란스'란 명제는 무척이나 인상적이었고 지친 나를 위로해 주는 느낌이었다. 신체와 감각, 일과 성과, 관계, 미래와 영성, 이 네 가지를 균형 있게 삶을 꾸려 나가고 약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긍정주의 심리치료가 주는 메시지는 나 자신과 내 주위를 돌아볼 수 있게 하였다.

다시 익숙한 곳으로

어릴 때 소풍 전 설렘을 기억한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내게 소풍 같은 것이었다. 조금 달라진 것은 끝나고 나서 그리 허무하지 않고 뭔가 나를 채웠다는 느낌이다. 아카데미를 통해 다시 한 번 나와 내 주위에서 새롭고 낯선 것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그 낯선 경험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친밀하고 익숙한 것들에 있음을 다시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 소중함에 감사드리며 나는 이제 다시 익숙한 곳으로 돌아간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3.1기의 시작을 알리며



류미정
홀트아동복지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3.1기가 시작되었다. 3기 교육과정 동안 생소한 분야의 공부를 하느라 교수님들의 강의 내용을 따라가기에도 벅찼고, 추천도서 또한 읽는 데 급급했었다.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조금은 느긋하게 추천도서와 강의교안을 읽으며 ‘아, 이런 뜻이었구나, 그럼 조직에 다른 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는구나!’라며, 아카데미에서 배운 내용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나머지 공부를 하듯 나의 3.1기가 시작되었다.

정말 배우고 싶었고 참여하고 싶었던 아카데미 교육생으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은 대학 합격보다 더 기쁜 소식이었다. 21년간 일해 오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이 기관에 도움이 되는 존재인지, 후배들에게 선배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고 있는지, 우리 기관이 성장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지’ 그 해답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나의 다급한 마음은 교육에 최선을 다해 임하게 하는 큰 동기가 되었지만, 때로는 어설픈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선부른 판단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와 조직에 대한 답답한 마음으로 힘들었는데 마지막 캡스톤 수업을 통해 지난 6개월간 고군분투하던 나에게 무엇이 부족했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이고, 다시 한 번 조직과 나에 대한 꿈을 키워 나가고 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출발선에서 “사람은 성찰할 수 있는 존재이고, 세상이 넓게 보여야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정진홍 이사장님의 말씀이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지금 내 마음 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좀 더 일찍 그 말씀을 깊이 헤아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돌아켜보면 아카데미의 교육과정 하나 하나가 나를 돌아보고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다. 전략모듈에서는 ‘경영’의 개념을 배우고 이를 우리 조직에 접목시키려 애쓰면서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고, 리더십 모듈을 통해서 ‘나는 좋은 팔로워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 삶의 리더, 내 일의 리더로서 자질을 채워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며, 사회혁신 모듈은 그야말로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읽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네트워크를 수량화할 수 있다는 것에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수업으로 기억에 남는다.

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는 ‘팀’이 하나의 ‘조직’이었고, 조직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경험해 봄으로써 기관에서의 ‘나’를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훌륭한 조원들 덕분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지금도 나에게 좋은 멘토들인 그들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나에게 준 소중한 선물이다.

아카데미에서 만난 최고의 교수님들, 우리들을 세심히 챙겨준 아산나눔재단 스텝분들, 그리고 29명의 동기 교육생들은 모두 스승이었고 든든한 지원자였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3.1기를 시작하며 ‘생각을 멈추지 않는 리더, 소통과 행동으로 혁신을 만드는 리더로 성장하겠다’는 나의 포부를 잊지 않고, 내가 서있는 이 자리에서 조용히 실천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한다.



거친 시간의 기록



박은미
중립종합사회복지관

SNS를 통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모집 안내를 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했다. 그 동안의 교육처럼 참석만 잘 하면 모든 과제들이 해결될 것일테니 성실히 참석하면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나의 안일한 생각은 다시 한 번 나를 돌아켜 보는 시간이 되었고, OT와 입학식을 통해 점점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한 나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수료를 앞두고 많은 생각과 자기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다.

사회복지기관에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나는 리더로 회의를 주관하거나 의사결정에 있어 얼마만큼 주변을 살피고 다수의 의견을 경청했는지, 나의 생각과 고집만을 강요하지 않았는지, 나는 어떤 자세로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였는지? 많은 생각들이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특히 캡스톤 모듈을 통해 조별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은 나를 지치고 힘들게 했지만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자기성찰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6개월 간의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과정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육의 끝마침이 지금 나에겐 매우 즐겁고 시원하다. 교육과정에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존경스러운 교수님들, 그리고 매주 맛있는 저녁식사와 간식을 제공해주신 아산나눔재단 여러분들의 밝은 미소도 기억에 남는다.

어렵고 힘든 교육과정이었던 만큼 내가 얻어가는 것도 많은 거친 시간이었다. 그 동안 나는 쉽 없이 달려왔다. 많은 부분을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한 아카데미를 바탕으로 진정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려 한다.

다시 일상에서 나는 바쁘고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들로 인해 어려움이 생기겠지만 조금씩 여유를 가지며 변해 가고자 한다. 나를 위하고 나와 함께하는 직원들과 조직을 위해서!

“사람은 노력을 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무언가를 강렬하게 바라지 않아서 노력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얻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또한,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도 있다.

나는 강렬하게 바라고 노력할 것이며 즐길 것이다. 그리고 여유를 가질 것이다.

이제 나는 다시 시작이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소중한 기회



백정은
정다우리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와 함께한 지난 6개월은 인생에 큰 깨달음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과 전략을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귀한 인연을 만나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가치있는 세상을 더불어 함께 세우는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이런 좋은 과정을 만들어 주신 아산나눔재단과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의 시간을 배려하고 지원해준 직장 동료들, 가족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수기를 작성하려고 하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참가 지원서를 제출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했던 시간들, 면접 심사 현장에서의 숨막히는 긴장감 그리고 기다림, 합격 소식을 듣고 임신 소식을 들었던 것만큼이나 기쁘고 설레던 순간들이 떠오르며 미소가 지어진다.

첫 번째 공식 일정이었던 오리엔테이션에서 정진홍 이사장님께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어른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성숙한 사람', '어른'이 되기 위해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 생각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귀가했었다.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말이다.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다양하고 유익한 경험을 많이 하였는데 기본적으로 비영리 경영과 리더십, 사회혁신, 캡스톤 모듈 모두 실무적으로 꼭 필요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고, 사회적 기업가 특강이나 구글코리아 견학, 디자인씽킹 수업 등은 나의 갇힌 사고의 틀을 깨는 시간으로 특별하게 다가왔다. 빠른 사회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선도해 나가는 기업과 조직을 보며 현장의 현실과 괴리가 느껴져 심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변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에 더욱 의미를 두기로 하고 내가 속한 조직에서부터 시작해보고자 한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나에게 거울이었고, 쓰디 쓴 약이었고, 자랑이었다.

진지하고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직시하는 시간이었고, 부끄럽고 부족한 나를 드러내고 인정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리더로, 그리고 팔로워로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카데미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고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촉매제가 되었다.

이제 배움을 실천할 단계이다.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현장에서, 아자아자 화이팅!



‘깊고 오랜 사랑’,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서태봉
한국심장재단

지난 6개월의 과정을 돌아보면 고비가 참 많았다.

해야할 일은 점점 쌓여가는데, 체력이 고갈되면서 건강상의 문제도 느꼈다. 그리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할수록 눈에 보이지 않던 내 문제점들도 자꾸만 보이기 시작했다.

업무도 공부도 소홀히 하기 싫어 무조건 열심히 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벽에 부딪혔고,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하였다.

전략적 리더십의 실천이라는 캡스톤 모듈은 ‘도전’ 그 자체였고, 조원들과 힘든 과정이 반복될 때는 자신감을 잃고 정말 전략적으로 리더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도 먹었다.

하지만 그 순간 똑같이 넘어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서로를 챙기며 아껴주는 동기들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 ‘저 친구~ 나보다 더한데, 아니 그런 걸 어떻게 참나, 아니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하나...’ 처음에 너무 근사하고 잘나 보이기만 해서 은근 거슬렸던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내가 힘들었던 것보다 더 마음이 무겁고 남일 같지 않았다.

그 때부터였던 것 같다. 판단을 멈추기 시작하고, 읽던 책에 더 집중하며, 서로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세상을 조금 더 어루만지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가며 바보처럼 꿈꾸는 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커져갔다. 그리고 서서히 아픈 곳이 아물고 새로운 근육이 생겨, 서로가 힘을 내는 모습에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이후에도 우리는 여러 우여곡절을 함께 겪고 위기를 극복하며 해외방문연구조사를 갈 수 있었고, 지금까지 다져진 팀워크와 애정으로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서로에게 선물했다. 약 4천 장의 사진과 함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3기, 3조 톨링에그와 때론 한 가족처럼, 때론 무서운 선생님처럼, 때론 연인처럼 서로에 대한 ‘깊고 오랜 사랑’을 앞으로도 이어 가고자 한다. 그리고 이 느낌과 감동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더 많은 동기, 선배님들과 앞으로도 함께 나누길 소망하고 약속한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즐거움



손정화
라파엘인터내셔널

‘만약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입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면접날, 호기로운 약속을 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수료식을 앞두고 있다. 잦은 출장과 밀려드는 업무로 처음의 다짐들을 지키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되돌아보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나에게 좋은 자극이었고, 성찰의 시간이었다.

우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하는 힘을 키울 수 있었다. 사회자로서, 관찰자로서 그리고 참여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배우기도 했고, 언쟁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 비영리 분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었고,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다.

도전도 있었다. 캡스톤 모듈을 통해 난생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팀을 만들어 단체를 구성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을 깊게 관찰하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 하나쯤이야’ 혹은 ‘이 정도면 충분해’ 등 유혹에 늘 시달렸지만 일과 사람을 구분하는 좋은 경험의 시간이었다.

같이 수업을 들었던 동기생들로부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로 인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나 역시 ‘시간이 없어, 내 책임이 아니야.’라며 해야 할 일들을 외면하고 있던 스스로를 발견하고, 남의 허물은 크게 보면서 정작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는 점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내가 몸담고 있는 현장에서는 항상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제는 혼자가 아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용기가 생긴다. 비록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끝나지만,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아카데미 이후의 상황을 공유하고 격려하는 노력을 계속하려 한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로 만난 우리의 네트워크는 이제 시작인 것이다.

혁신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구체화하는데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Frontier(프론티어)’라는 말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경계를 좀 더 확장하고, 새로움을 놀이처럼 재미있게 받아들여야겠다고 새삼 다짐하게 된다.

비영리 분야에 대한 깊은 애착과 고민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시던 교수님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던 아산나눔재단 스텝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채워짐의 시간, 그리고 사람들



송미령
고양YWCA

채워야한다!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의 권유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접하게 되었다. 그 당시 나는 법인 시민단체의 사무총장으로 3년을 지내면서 인력과 재정 부족의 중압감에 충전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쏟아내기만 해야 하는 상황에 지치고 소진을 겪고있던 시기였다. 내가 채워져야 한다는 위기의식과 그래야만 리더십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갈급함으로 지원을 했다. 내가 채워져야 한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언어

전반적으로 수업내용은 비영리 분야에서 잘 들어볼 수 없었던 내용이었고, 나는 딱딱하게 구조화된 머리를 정으로 깨는 느낌으로 수업에 참여하였다. 잘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은 외국어 같았다. 개념이 잡히질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의 내가 결정을 위해 고려한 기준과 가치들이 얼마나 알팍한 경험에 의존했는지 깨닫게 되어 부끄러워졌다. 영리 조직의 전략이 가치와 신념을 중요시하는 비영리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 교수님들의 열정과 나의 지적 호기심이 새로운 관점과 조직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했다.

캡스톤을 통해 객관적으로 나를 보다

캡스톤 모듈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 불편한 시간이었다. 조별논의 중, 그때 그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일과

사람의 패턴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실천 리더십의 역할을 고민하는 과정은 익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고 교수님의 말씀과 상황을 통해 조직 안에서의 내 리더십을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실제 조직 안에서 조직원들과의 회의나 의사소통 시 패턴을 확인하고 개입하려는 노력이 조직원들의 참여를 기반을 한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발전하는 경험도 하였다.

하루 평균 2만보!

해외방문연구조사는 6개월간 다져진 관계가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었다. 각자의 역량과 재능에 따라 훌륭한 팀워크를 이루었고, 하루 평균 2만보를 걷는 강행군 속에 힘들고 지쳤지만, 수업을 통해 배운 실천적 리더십을 실행하고 있었다. 해외방문연구조사를 통해 우리 계획들을 실천한 기관을 직접 만남으로 그들의 기관 운영 신념과 가치 그리고 전문성 등을 보았다. 한 편으로 우리도 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의 시사점을 느꼈다.

과정을 마치며

수업시간에 늦지 않겠다고 혈레벌떡 뿔 일 없어서 좋다. 일주일에 두 번 밤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갈 일 없어서 좋다. 직원들 눈치 볼 일 없어서 좋다. 과제 없어서 좋다. 흥가분한 일들이 많은데 마음이 무척 허전하고 아쉽다. 6개월간 같이 동거동락 했던 3기 동기들을 자주 볼 수 없는 것이 아쉽다. 특히 3조의 롤링에그 조원들! 열정이 한 가득 느껴지는 최고의 교수님들, 그리고 그분들이 보여준 겸손함! 우리에게 지식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느끼고 찾게 해준 분들을 자주 뵈지 못한 것이 아쉽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섬겨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스텝과의 헤어짐이 아쉽다.

결국 사람이다! 아카데미는 끝났지만, 함께 배우고 변화한 사람들이 남았다. 사람이란 아름다운 자산을 남겨 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과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쉬운 이별을 고한다.



스스로 체험했던 교육을 마치며



원미현
생명의숲국민운동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준비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기존 교육과 다르다는 소문을 들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걱정이 현실로 다가왔다. 캡스톤 모듈은 교수님의 말투, 설명부터 긴장의 연속이었다. 모두가 숨 죽이고 교수님께 주목한 시간. 살얼음판 위에 서있는 느낌을 참 오랜만에 느꼈다. 지나치게 익숙한 것들에서 오는 편안함이 아니라 낯선 환경과 수업 방식이 참으로 당황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서슴없이 교수님들께 교육 운영방식에 코멘트를 하시는 다른 선생님들. 다르긴 정말 많이 달랐다!

늘 익숙한 사람들과 회의하고 결정하는 것에 길들여진 내가 다시 낯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과 후회가 밀려왔다. 정규 수업이 진행되면 조금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나에겐 경영인자가 0% 였던 것 같다. 전략 수업 첫날부터 영어로 가득 찬 PPT자료를 보니 절로 한숨이 나왔다. 읽을 것들은 많아지고,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며 안되는 외국어를 해석하며 따라가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엉금엉금 따라가는 거북이 학생에겐 수업 매 순간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곤 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에 아직 몸과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던 나는 수업 초기에 참 많은 신고식을 스스로 치러내야 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그나마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수업은 리더십 모듈이었다. 정답이 없는 리더십이지만 리더십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나와 우리 조직을 돌아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머리로, 눈으로 읽어서 아는 리더십이 아니라 실천하며 몸에 습관처럼 스며드는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젊은 청년 창업가들과의 미팅을 통해 단단한 나 자신을 둘러싼 벽을 깨는 시도들이 필요함을 느꼈고, 독서를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 덕분에 소중한 책 선물도 받을 수 있었다.

비영리 기관이 운영 내규나 활동가 역량강화, 조직문화와 관련하여 오히려 기업들보다 보수적인 경우가 있다. 인적자원 모듈을 통해 현실에서의 필요성과 고민들을 되짚어보게 되었고, '나로부터의 변화가 조직변화의 시작이 아닐까?'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케팅·모금 모듈에서는 기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패했던 사례들과 성공했던 사례 과정을 알아가는 것도 재미있었다. 한 주 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꼭꼭 되짚어주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도 배움이 느린 학생에게는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넘을 수 없는 영어 용어의 한계는 마케팅에서 정점을 찍기도 했다.

재무·회계는 비영리 활동가에게 참으로 어려운 분야이다. 복식회계 실습은 식은땀이 날만큼 어려운 일이었지만 회계 용어를 이해하기보다는 우선 외우라는 교수님의 말씀과 현장 체험기를 들으면서 활동가 선배를 만나는 기쁨도 느낄 수 있었다. 신입시절 회계 담당했을 때의 기억들도 새록새록 떠올라 빙그레 웃음을 지을 수 있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꽃은 캡스톤이었다. 숫자게임에 걸리면서 우리 조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던 나. 아무런 준비 없이 무대에서 날 것 그대로 보여졌던 시간은 하루보다 더 길게 느껴졌었다. 수업 초반에 잔뜩 깨지고 나니 더 많이 긴장되었던 것 같다. 매 수업시간이 어려웠고, 힘든 상황 속에 놓인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어떠한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지는 여전히 순간순간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틀에서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함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나를 발견한 배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마치며



유미란
아름다운동행

하나. 모두 살아남으세요.

하나. 숫자와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자기의 역할과 자기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나를 묶는 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 무엇인가를 전달할 때는 쉬운 언어를 사용하세요.

하나. 조용히 단체로 돌아가세요. 1년 동안은 경청을 하세요.

하나. 정답이 없는 세상에서 모두들 굿바이(“God be with you”)입니다.

캠스톤 모듈 김상범 교수님의 마지막 교육시간 소회이다.

15년 동안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고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교육의 마지막이 “권력과 리더십 안에서 모두 살아남고 가서 조용히 하고 교육 때 배운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으며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빌면서 안녕히 입니다.”라는 소회는 감동이었다.

처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신청할 때가 기억이 난다. ‘교육인데 면접까지 보네.’ 어지간히 완속해진 업무 속에서 조금은 벗어나고 싶은 충동 속에서 교육신청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익숙해진 업무이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회의로 갈등의 기로에 서 있었을 때 교육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는 '다시 해보자,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해보는 거야.'라는 마음가짐을 갖기에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하지만 교육은 정말 녹록치가 않았다. 교육을 안가는 날엔 야근을 밥 먹듯 하면서 교육에 참여하는 동안 완결하지 못한 업무를 처리해야만 했다.

그렇게 긴 6개월이 끝났다. 아카데미 덕분에 내가 속해있는 기관의 중간관리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업의 성과측정, 사업결정, 이사회 자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빠른 이해력 등에 대한 많은 학습으로 '내가 매우 많이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 속에 나를 흐뭇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배움이 있었다. 바로 '내 자신을 정말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많은 교육과정과 캡스톤 모듈의 조별 활동을 통해 나보다 못한 나도 만났고 가끔은 잘난 나도 만났던 것 같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숙제로 남아있는 나를 되돌아 보는 시간. 그래서 나를 알 수 있는 시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의 배움은 바로 나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일곱 난쟁이와 함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유혜경
다시함께상담센터

7명의 난쟁이 이름을 아십니까? 내가 이들의 이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해외방문연구조사 중 덴마크에서 일곱 난쟁이 피규어를 사게 되면서부터이다. 백설공주와 함께 살던 7명의 난쟁이로 기억하는 나는, 장난감 가게 점원이 계산하면서 난쟁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에게 이름이 있어요?”하고 묻자 점원은 웃으며 자신이 붙인 이름이라고 했다.

우습기만 했던 그의 행동에 호기심이 생겨서 검색해 보았더니 1937년 월트 디즈니가 만든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난쟁이들이 이름이 나온다. 리더인 똑똑한 난쟁이 Doc (박사), 알레르기 때문에 항상 강한 재채기하는 Sneezy (재채기), 백설공주에게 적대적인 듯 하지만 속으로는 공주를 좋아하고 걱정하는 Grumpy (심술), 항상 미소 짓는 Happy (즐거움), 부끄러움을 타서 얼굴이 빨개지는 Bashful (부끄럼), 졸려 하는 Sleepy (졸립), 말은 못하지만 난쟁이들 중 백설공주를 가장 좋아하는 Dopey (멍청이)이다. 그의 유머스런 행동과 나의 무지함이 함께 교차된 시간이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최종 합격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왜냐하면 오리엔테이션에서 친교의 기쁨도 잠시, 종이컵 쌓기로 팀원이 정해지고, 캡스톤에 대한 설명과 함께 팀 과제를 준비해야 하는 도전의 순간들이 닥치게 되었다. 이것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였다.

비영리 경영, 리더십과 사회혁신, 캡스톤과 해외방문연구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배우고 익히고 해보는 3단 콤보를 지나왔다. 수료를 앞두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푹푹한 척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고, 마음과 달리 심술도 부렸지만, 날 미소 짓게 하던 동료들이 있었다. 때로는 선부른 질문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업무를 다 마치지 못하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육장에 앉게 되면 어느새 졸림이 따라다녔다. 설상가상으로 해외방문연구조사에서 아이패드를 잃어버린 멍청함까지 나를 둘러싸고 있던 시간들이 생각난다. 내 삶의 일곱 난쟁이. 그러나 주인공 백설공주와 난쟁이들은 대립하지 않았다. 그들이 서로 도와가며 행복한 숲 속 생활을 이루었듯이 내가 접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상황들을 이제 조금 여유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듯하다. 그것은 6개월 동안 업무와 교육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고, 2주 동안의 해외방문연구조사로 도전에 임하는 자세와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다.

기적은 나와 먼 일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마치면서 날마다의 기적은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감사하고, 업무시간을 배려해 준 센터에 감사하다.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 아카데미 동기들과 배움을 나누고 다져서 의미있는 디딤돌로 성장하고 싶다.



어떤 하루



이아영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어떤 하루는 평범하고 익숙한 매일매일 중에서 “문득”을 느끼게 되는 날이다.

전날 야근으로 찌뿌드드한 몸으로 출근한 아침. 어제 쌓아놓았던 서류들을 들춰보고 이메일함을 열어 잔뜩 쌓인 광고메일 속에서 중요한 메일은 없는지 확인한다. 메일을 모두 확인하지도 못한 채 들어가는 회의들과 밀려오는 업무들을 하나씩 처리하다가, 늦었다! 그리고 안국역을 향하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뛰기 시작한다.

항상 바쁜 일상이었다. 그리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별 일이 아니라 여겼었다. 바빴던 일상 속에 바쁨이 살짝 엿혀진 것뿐이었으니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하기 전, 기관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아주 많이 지쳐있었다. 아니, ‘지쳤다’라는 표현보다는 ‘상처 받았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걱정하고 때린 것도 아닌데 여기저기 맞아 상처 난 채였다. 너무나 좋아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처음에도 그리고 정말 힘들었던 많은 순간들도 나의 선택은 늘 이 자리였었는데, ‘왜 나는 여기에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던 날들이었다.

그러다 막연함 기대감과 함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아카데미 수업을 들을 때마다

나의 하루는 「어떤 하루」가 되었다.

전략 모듈 강의를 듣고 나서는 회사의 환경과 전략을 돌아보게 되고, 리더십 모듈 수업 후에 나는 어떤 팔로워였나 싶었고, 마케팅·모금 수업은 그 동안 일방적인 마케팅을 한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었다.

모든 수업들 그리고 모든 특강들이 너무나 익숙했던 업무와 관계들을 조금씩 조금씩 흔들었다. 그 중에서 정점을 찍은 것은 캡스톤 모듈. 단어도 낯선 캡스톤 모듈은 나에게서 자신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시도하게 했고 아직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회의든 어떤 모임이든 ‘유체이탈’ 참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수업을 들으며 거의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상처받았던 마음이 아물어진 것은 시간의 공도 있었겠지만, 수업을 들으며 나와 나의 위치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게 된 시선과 무엇보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받지 못한,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의 같은 마음으로 보다듬어 준 선생님들의 위로가 가장 크다.

오리엔테이션 때 정진홍 이사장님이 읽어주셨던 타고르의 시가 맴돈다.

“외로운 밤이 네 앞길에 펼쳐지고, 새벽은 그림자 내린 언덕 너머에 잠들어있다.
별들은 숨을 죽인 채 시간을 세고, 연약한 달은 깊은 밤 속을 헤엄치고 있구나.
새야, 오 나의 새야, 내 말을 들어보렴, 날개를 접지 마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교수님들부터 스태프들과 함께 공부한 모든 선생님들까지 날개를 접지 말라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목소리들 같다.



Good-bye



이인숙
쫄물왕국지역아동센터

저체중으로 일찍 세상에 나온 내 아이를 위해 또래 친구들을 품에 들여놓은 후 여러 차례 울려오는 경비실 인터폰에 마음을 졸였고, 퇴근해서 돌아 온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꼬맹이들의 껌뻑한 발 냄새를 없애려고 환기 시키기에 바빴던 그때, 내 아이를 위해 모든 아이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소망하는 그냥 평범한 엄마였다.

정이 그리운 아이들은 부족함이 많은 나를 잘 따랐고 점점 더 많아지는 아이들을 위해 남편은 내게 작은 공간을 따로 내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 어린이 꿈터 ‘쫄물왕국’이라는 간판을 걸었다. 작은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공간에서 우리는 힘든 일은 잊고 그냥 놀았다. 그렇게 10년 넘는 세월이 흘러갔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힘도, 자신이 처한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용기도,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나는 ‘마을이 함께 돌보는 아이’라는 목소리를 내며 지역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어른들은 아이들과 달리 친구가 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인지 사람얹이를 많이 하게 되었고 점차 무력함도 느끼기 시작했다.

내게 맞는 적절한 치료법으로 교육을 찾던 중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3기 모집 글을 발견했다. ‘프론티어’, ‘새로운 영역의 개척’. 아! 정말 단어만으로도 다시 내 어깨가 빠근해져 오는 것만 같았고 교육과정 또한

벽차서 엄두가 나질 않았다. 그런데 ‘캡스톤’, ‘일과 사람의 역동성에 대해 경험’이란 문구가 나를 잡아 끌었다.

면접을 같이 보던 사람 중에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재수생’이 있었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나는 이 과정을 꼭 들어야겠다는 욕심이 생겨 무리수를 두었다. “저는 두 번 다시 이 과정을 신청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 다시 또 걱정이 돼서 “제 말은 이번에 꼭 붙고 싶다는 뜻입니다.”라고 해명을 했다. 그때 면접위원님께서 “아~ 왜 갑자기 약한 모습 보이고 그러세요. 그냥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라고 응대해 주셔서 약간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보다 사람과의 문제가 더 힘들다는 것은 이미 경험해서 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캡스톤 실험대에 오르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냥 믿었던 사람들, 내 나름대로 동료의식을 갖고 있었던 동기들. 그리고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조원들 사이에 겪는 갈등들은 더 많이 힘들고 아팠다. 그리고 더 많이 나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 특히 리플렉션 메모를 작성하면서 솔하게 교차하는 갖가지 감정들과 그런 나의 감정에 휘말려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내 모습을 발견할 때는 한없이 초라해졌다.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부끄러운 기억을 말끔히 지워내고 다시 교육장으로 향하는 내 모습이 가끔은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부족함을 애정과 관심으로 감싸 안아주는 동기들, 늘 환한 웃음으로 활짝 반겨주던 스텝들, 이름만 들어도 정겹다.

이제 6개월의 휴양을 마치고 다시 정답 없는 세상에 화해를 청하기 위해 떠나야 할 시간이 온 것 같다. 김상범 교수님의 마지막 시간 머쓱하고 멋진 멘트 ‘Good-bye’와 ‘살아남으라’는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다시 그리운 사람들에게로 돌아간다.



변화의 주체는 곧 나 자신이었다



이정권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그동안 친숙했던 일상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보통 “경험이 큰 교훈이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아카데미에 참여하면서, 그 동안 겪어오며 쌓아온 경험들이 오히려 잘못된 인식을 만들어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험적 인식들을 잠시 내려놓기가 정말 힘들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과 입장이 되어 보는 것, 공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사실 비영리 분야에서의 10년 남짓의 기간은 내가 살아온 인생의 사분의 일이기도 하다. 지난 6개월 간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그 사분의 일을 다시금 정리하고, 앞으로의 사분의 삼,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을 재정립하게 해 줄 이정표와 같은 시간이었다.

대학시절 전공했던 경제학은 첫 직장을 들어가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직장 생활하는 데에도 배경지식이 되었다. 그런데 현실에 너무 안주했던 것 같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듣는 모든 강의가 너무 새롭고 뜻 밖이었으며, 나로 하여금 도전의식을 갖게 해주었다.

전략 모듈은 일상적이고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했고,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전략과 나의 전략을 어떻게 일치시켜 서로 윈윈할지 고민토록 했다.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인적자원 모듈은, 결국 사람들의 모임체인 조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안내서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 모금·마케팅 모듈은 가장 현장성 높은 분야로서 실제 경험적 시각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며, 지속가능한 조직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리라 생각했다. 재무·회계 모듈은 내게 가장 친숙하게 다가왔던 모듈이자 실제 재무담당자의 비애를 같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나는 팔로워로만 살아온 것 같다. 지금도 리더와 리더십이 낯설다. 조직에서나 가정에서,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리더와 팔로워로서 임해야 할 지는 앞으로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한다. 사회혁신은 앞으로의 사회문제나 직장에서의 문제, 가정 문제 등을 어떻게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할 지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점을 제시해 준 것 같아 좋았다. 창의성은 어느 한 명의 천재적 발상이 아니라 집단지성이 모여 더 큰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깨달음은 두고두고 되새겨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 거의 매 주마다 이어진 캡스톤 모듈은 일품이었다. 전체 강의를 하나로 이어주는 중심체와 같았다.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팀원들과 토의하고, 그 속에서 또 다른 배움을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마치 다른 언어로 일기를 쓰듯 말이다. 일과 사람에 대해 깊은 고민과 생각에 빠질 땐 미처 몰랐지만 그런 과정이 생각을 풍부하게 한 것 같다. 마지막 해외방문연구조사 기간 중 팀원들과 이야기하며 왜 우리가 그 긴 시간 동안 팀프로젝트를 통해 달려왔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 모든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느껴진다. 그 동안의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지 모르겠다.

우리 주변의 것들은 나를 위해 변해주지 않는다. 그 속에서 변해야 할 주체는 나 자신인 것이다. 나로 인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시간들



이현진
와우책문화예술센터

어느 때보다 스스로와 우리 단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깊을 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신청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가면 도움이 될까, 합격한다고 해도 과연 다닐 수 있을까, 만약 합격해서 수강을 하게 되었을 때 회사 일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그 어느 쪽도 잘 못해 낼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나를 두렵게 했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업무도 학습도,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허둥지둥 끙끙대는 내 모습이 딱하기도 했지만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하는 자괴감마저 들었다. 지금이라도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시간을 낸다는 것은 다시금 나를 더 돌아볼 시간이 되어 주었다. 업무에 수차례 매몰되어 우리 단체에서의 역할, 단체의 방향을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수업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실망도 했다. 다양한 이력과 연령대의 수강생들에게 다 맞는 수업을 만들 수는 없기에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도 몇몇의 수업과 교수님들은 업무에서뿐 아니라 내 삶에 도움이 되었다. 오리엔테이션 워크숍에서 정진홍 이사장님의 강연 중 "생각은 생각을 되생각하는 데서 나온다"는 말씀은 마음에깊이 새겨졌다.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 수업에서 배웠던 분석 기법을 활용해보려 노력도 하게 된다. 또한 리더십 모듈은 스스로를 성찰케 하고 조직에 실험해 보게끔 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경험은 나와 비슷하거나 다른 경험을 가진 수강생 29명과 함께 고민했던 시간들이었다. 같은 조가 된 사람들은 성향까지 잘 맞았다. 서로 의지하고 노력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더라도 또 이 아카데미를 무리해서라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심 성의껏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진행했던 교수님들과 스태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다.

함께했던 동기들은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은 마냥 동지애를 느낀다. 바쁜 일상에서 더 바쁜 수업으로 들어가서 체험했던 망중한(忙中閑)의 경험, 그 짧은 순간의 사유를 마음에 담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갈 것이다.



일과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나’로 성장하기



임윤정
환경교육센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 지원하던 때는 현재의 조직에서 5년 동안의 상근활동을 보상받으며 한 달여의 안식휴가를 앞두고, 길게는 12년 동안 NGO활동을 정리를 해보고 싶었던 시기였다. 사람을 좋아하고, 그 이상 일도 좋아해서 ‘함께 하는 일,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더 큰 의미를 두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엔 ‘사람’이 아닌 ‘일’을 보고 ‘일’을 위해 ‘함께가 아닌 나 혼자서’ 앞을 향해 달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준비하지 못한 채 의도하지 않은 ‘중간관리자’라는 수식어가 내게 붙어 있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중간관리자’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좌충우돌하고 있던 그때 ‘대한민국 비영리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 육성’을 비전으로 하고 있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나에게 비영리 조직의 ‘좋은 중간관리자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질문에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에서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고, 3기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다.

6개월 동안의 교육 과정은 일을 병행하면서 소화하기에는 분명 녹록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일주일에 2번씩 시간을 내어야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교육 내용 또한 대학원으로 치면 한 학기 동안 진행되어야 할 분량이 4~5번의 수업으로 압축되어 있었고, 각 모듈에서 배운 전문적인 내용을 스스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캡스톤 시간에 공동의 작업 과정에서 그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학업과 과제에 대한 부담 외에 스스로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수업을 들을수록 ‘지금까지 내가 사갔었던 방식,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이 맞는 방식일까? 그게 최선일까?’ 등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던지게 된 것이다. 그전까지 큰 고민 없이 관성적으로 진행했던 일을 이런 물음에 대해 하나하나 되짚고 넘어가면서부터 일의 속도도 느려지고, 그러면서 업무에 과중도 느끼고, 동료들과 생각의 차이도 벌어지게 된 것이었다.

캠스톤 모듈은 일과 사람을 다원하게 보고 균형 있는 판단을 강조했다. 동료들과 일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목적을 공유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조직의 공동 가치를 추구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 습관적으로 고민하였다. 그 이전에는 ‘차라리 나 혼자 하고 말지’라는 생각이 ‘작은 일이라도 후배들과 동료들과 함께 해야지.’로 바뀌게 되었다. 함께하는 동료들과 ‘작은 성공’을 맛보고, 그로 인해 함께하는 후배 동료들의 눈빛과 태도가 변하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며 ‘좋은 중간관리자’의 모습이 아직 또렷하지 않지만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

이번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서 비영리 조직의 리더가 되기 위해선 ‘일과 사람’ 모두를 놓치지 않고, 나도 성장하고, 조직도 성장하고, 무엇보다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부기 원시인 드디어 동굴 밖으로 나오다



전상준
아름다운가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말을 평소에 자주하곤 한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은 그렇게 다가왔다. 기관 내의 아카데미 경험자의 추천으로 자연스럽게 지원할 수 있었다. 기관 내부 선발과정을 통해 힘들게 지원한 터여서 더 기대감이 크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3,000자 이상의 지원서류를 써 내려가며 오기도 생겼었다. 수료를 앞두고 지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을 회상하면, 배움은 끝이 없다고 생각했던 막연한 믿음이 맞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상황에 맞는 판단력’이 전략적 리더십의 실천 모습이라는 메시지가 단순한 단어적 의미를 넘어 피부에 와닿았을 때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때로는 길을 찾았다는 희망을 품기도 했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헤매기도 했던 것 같다. 마치 뇌간에 입력된 정보처럼 몸이 기억하려 할 때쯤 어느덧 수료를 하게 되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현장 중심, 실천적 지식을 함양하는데 구체적인 배움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된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기존 교육과정과 달리 현장의 사례를 기반으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했던 시간들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모듈은 당연히 캡스톤이었다. 낯선 과목이기도 했지만 지식을 넘어 지혜를 내재화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조원들과 과제를 위한 토론을 진행하면서도 그 속에 참여하는 나의 모습과 타 조원의 모습

속에서도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해가며 매 횃수를 거듭할수록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괴롭고 피하고 싶었던 시간이었는데, 김상범 교수님의 시기 적절한 코멘트와 절묘한 일침 속에서 무참히 무너져 내리는 나의 자아를 목도하며 한없이 겸손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수료를 앞두고 아카데미를 통해 느낀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물론 무엇 하나를 선택하기 힘들 만큼 나열하고 싶은 무수한 것들이 있지만), ‘전략적 리더십’이다. 내게 이 단어의 해석은 『네안데르탈인의 그림자』라는 도서 속 주인공이었던 부기 원시인의 사례처럼 사람들과 대화하고 협의하며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리더십과 팔로워를 발휘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연상하며 연마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접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단 한 순간도 동일한 조건은 존재하지 않기에 필요한 역량은 ‘상황에 맞는 판단력’을 통한 리더십과 팔로워의 발휘라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 몸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아직 완벽히 내 몸이 기억하는 단어로 소화했다고 할 순 없겠지만, 아카데미를 통해 일상적으로 습관처럼 기억하고 가꾸며 키워가야 할 씨앗을 얻은 느낌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의욕만큼 후배가 따라주지 못하고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중간관리자, 비영리 분야의 MBA과정을 이수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현장 실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연해하는 중간관리자,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몰라준다고 자책 하고 있는 중간관리자...’ 주변에 있는 NPO단체 활동가들 중 이런 분들에게 아카데미를 추천하고 싶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정답을 대신 써주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아픈 성숙의 열매



정선영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2015년의 시작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라는 새로운 세계와 함께 준비하고 열어가면서 정말 많은 각오와 결심으로 다짐했다. 그러나 생각만큼 따라주지 않는 주변 환경들 속에서 남몰래 가슴앓이하며 과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된 것 같다. 그간 경험해 보았던 수많은 교육들과는 다른 분위기의 교육과정과 시간 속에서 통상적인 성장을 기대했던 나는 너무나도 아팠다.

강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주어진 일과와 일상 속에서 그 과정을 수행하는 것도 버거웠지만 지속적인 고민거리의 양산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으로 빨려 들어가 헤어나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자신이 보여지는 고통의 연속이었다. 분명 교육 과정은 진도에 맞춰 진행되고 있고, 책장에는 교육 자료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뿌듯함보다 목직한 무언가가 머리와 가슴을 누르고 있어서 힘들었다. 특히,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긴장감을 놓을 수 없었던 캡스톤 모듈은 내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시간이었다.

내 생각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목적달성을 위해 죽도록 뛰어가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100% 동의를 전투적으로 구하고, 살벌한 분위기에 익숙해지며 모두가 함께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물론 아직도 캡스톤의 위력은 어마하다.

최종 결과물 발표와 수료식을 앞두고 조원들과 아직도 끊임없는 논의과정에 담겨 있는 상황이라 마지막까지의 명확한 소감을 마침표로 담을 수는 6개월의 아픈 시간들이 걸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강한 뿌리를 만들고, 엄청난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는 열매로 탈바꿈하고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자부한다.

비록 컵 쌓기를 통해 한 배를 탄 조원들이었지만 6명의 구성원들은 제각기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높은 자아존중감과 불도저와 같은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주황색 만언니, 분명한 사리분별과 유머러스한 대화법으로 조원들의 에너지가 되었던 파란색 둘째 언니, 감춰진 카리스마와 진중함으로 팀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섰던 검정색 오빠, 유쾌한 웃음소리와 눈웃음으로 안정감을 보여주었던 노란 동생, 행동대장으로 여기저기 분주히 발걸음을 옮기던 연두색 막내 동생, 그리고 티나지 않게 뒤를 챙기려 노력했던 하얀색의 나. 각각 다른 색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의 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다양한 사회변화와 더불어 만들어진 치열한 생존 경쟁 환경 속에서 좀 더 건강한 씨앗을 품고, 열매로서의 가능성을 겸비하기 위한 과정이라 표현하고 싶다. 그러하기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잘 견디며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내 자신에게 거울을 통해 눈웃음을 보낼 수 있다.

아직은 만족이라는 단어로 교육의 효과성을 표현하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좀 더 쓰임새 있는 열매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흡수한 것들을 ‘내 것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에게 다시 한 번 약속한다.



나를 그리다



채상아
여월농업공원

“부서지는 것은 아름답고 깨어지는 것은 찬란하다.”고 한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고 어깨에 완장이 하나씩 더해 갈수록 깨어지는 것이 왜 그리 두려운지. 부서지는 것이 시리도록 아파서 벽을 한겹 두겹 쌓다보니 내가 사는 세상은 우물 안이었고 내가 보는 하늘은 동전만했다.

꿈을 꾸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새로운 꿈은 있는 것인지, 나에게 끊임 없이 질문을 해 오던 중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만났다. 잊고 살아 너무 그림던 나를 다시 찾아보겠다고 나선 아산의 길에서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었으며, 새로운 나를 그림 그릴 수 있었다.

“내일의 약속보다 오늘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오늘도 어렵듯이 내일에 대한 약속을 해보지만,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캡스톤을 통해 깨어나면서, 전략과 마케팅을 배워가면서 인적자원과 회계교육을 받으면서, 막연한 필요성만 느끼던 과목들을 접하며 또 다른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내 본연의 나와 직장에서 역할이 주어짐으로 얻어진 나, 가정에서의 나,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내가 얼마나 다른지, 또 얼마나 같은지, 때와 장소, 시간과 관계 속에서 매번 '상황 속의 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차츰차츰 자리잡아 나아가니 내가 짜 놓았던 틀에 얽매어 스스로를 굽어내던 시간들 또한 차츰차츰 적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정해 놓았던 동그란 모양의 우물 밖 세상 속에서 네모난 모양의 세상을 말한다면 틀림으로 간주하고 탓하던 사람들과 상황들에 있어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다시 동그라미를 그려 세상을 보면 네모의 뾰족하고 모난 모서리가 동그라미 속으로 품어진다는 것을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마무리 되어가는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늦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저 과거의 나만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나를 그림 그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만들어 주신 아산나눔재단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공감과 동감을 온몸으로 함께 배우게 해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3기 동기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렇게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 그리고 언젠가 올 또 다른 날의 나를 그려본다.



다시 만나고 싶은 직면의 순간들



최형순
한국컴패션

마지막 소회의 글을 쓰는 이 시점에 많은 아쉬움이 드는 것은 ‘조금 더 직면했었다라면’이라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입사 이후 업무적으로 가장 바쁜 시기였다는 위안보다는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이라는 마음이 큰 걸 보니 ‘돌아갈 수 없는 참! 멋진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게 된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육생으로서의 시간을 돌아보면 다양한 만남이 있었다.

진심 앞에선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만남

면접 날 다른 면접자의 이야기에서 한 사람의 진심을 들었다. 10년 넘게 한 길을 보면서 열심히 달려 왔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힘 없는 자신, 직원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한 자신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이야기에 크게 공감하였다. 바쁘게 달려가다 보면 들을 수 없는 아픈 외침을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다. 그 외침이 마음 속에 큰 파장이 되어 계속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과정이 면접 이후 계속 되었다. 교육이 시작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제공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스스로 속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참 모습과 상태를 직면하는 ‘진심 앞에 서는 자세’를 배우게 되었다.

익숙한 것을 멀리하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용기와의 만남

수강생 중 막내로서 바라보게 된 선배님들은 용기 있는 분들이었다. 특히 캡스톤 모듈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몸부림, 다시 익숙한 것을 끌어 안는 자연스러운 모습 등 다양한 모습과 양상 속에서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의 교육이 아닌 내적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었다.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선한 힘을 필요로 하는 NGO 직원들에게는 더 없이 소중한 교육이란 생각이 든다.

더 없이 소중한 따스한 마음들과의 만남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다. 6개월의 시간을 함께하며 웃고, 울고, 고민하던 한 분 한 분의 동기생들이 참 소중한 분들을 얻었다는 기쁨이 된다. 특히 마지막 해외방문연구조사 기간 동안 묵묵하게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해 준 성실함이 우리 조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 평생 기억하고 추억할 즐거움이 되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는 따뜻하고 든든한 만남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아니었으면 경험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애쓰고 마음 써주신 스텝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이곳에서 배운 ‘스스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용기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보며 글을 마무리 한다. 감사합니다.



나 하나의 변화를 시작으로



허영미
한마음복지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면접을 통해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나의 다짐을 놓지 않으려 안국역을 향해 열심히 달렸던 6개월의 시간이 마무리 되고 있다.

입학식을 시작으로 펼쳐진 전략 수업은 이제까지 살아온 현장에서 처음 들어보게 되는 생소한 단어와 용어에 머리 속이 하얗게 되는 당황스러운 시간이었다. 이후 진행될 과정에 기대가 되기도 했지만 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 라는 고민이 폭풍처럼 밀려오는 첫 시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전략 모듈에 이어 펼쳐진 인적자원, 리더십, 마케팅·모금, 재무·회계, 사회혁신 등의 강의를 통해 15년 현장에서의 뒤엉킨 생각들이 정리되고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워크샵에서부터 머리를 무겁게 했던 캡스톤 모듈은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표를 찍는 무한 반복을 경험하게 했다. 1차 리플렉션 메모 피드백에서 박노해 시인의 「나 하나의 혁명이」의 한 구절,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남겨주신 글이 늘 떠오른다.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을 지내면 보통 전문가라고 한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유연하지 못하고 어찌면

역지사러운 고집처럼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며 답답해 하고 회피하고 싶기도 했다. 그러나 캡스톤 프로젝트 과정은 그 모습이 어찌면 다른 사람의 모습이기 보다 나의 모습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결국 나를 돌아보게 하였다. 물론 그 시간이 편안하거나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변화를 생각하고 꿈꾸고 있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가 아닌 나로 시작하는 변화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6개월의 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 1월 첫 워크숍에서 아산나눔재단 정진홍 이사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난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기회와 시간이 자신의 성숙을 측정해 보고 성장을 점검하고 생각에 생각을 더해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며 ‘나도 어른이 되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기대를 하며 그 동안 아낌없는 지원을 주셨던 모든 교수님들 그리고 아산나눔재단 스텝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함께 시작하고 함께 마무리 하는 3기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오래 오래



황주연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한 학기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수기를 쓰려니 처음 면접을 마치고 계동길을 걸어 내려가던 때가 생각난다. 어슴푸레 어둠이 깔리는 길을 걸으면서, 함께 면접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부러움과 가벼운 질투가 가슴에 남은 채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다.

첫 워크샵에서 팀이 정해지면서 기대 반 설렘 반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전략으로 시작된 수업은 생경한 용어들과의 싸움이었고, 마케팅·모금, 재무·회계, 리더십, 사회혁신 등 순간순간 한없이 낮아지고 부족한 자신을 느끼면서 고군분투하는 심정이었다. 그 와중에도 때로는 다른 분들의 열정에 매료 당하면서 사회복지자를 처음 시작하던 때의 초심이 되살아나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 캠프스톤!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캠프스톤의 위력에 지금도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진다. 경험해 보지 못한 수업방식과 때로 지나친 감이 들 정도로 냉혹한 피드백, 그리고 리플렉션 메모. 서로 다른 생각의 높에 빠져 허우적대는 느낌이었고, 평소에 내가 그 동안 일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균형감과 원칙을 얼마나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나’ 하는 질문이 계속 계속 가슴속에 꿈틀대던 시간들이었다. 또한 내가 그 동안 얼마나 타인에 대해서는 냉철하고 내 자신에게만 관대했었는지도 알게 되었던 거울 속의 나를 보는 느낌이 들기도 하였다.

아동발달 이론 중에 ‘비계 설정’이란 용어가 있다. 흔히 집을 지을 때 쓰이는 이 용어는 혼자서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아동이 친구와 협동하거나, 성인이 아동으로 하여금 새로운 능력을 발달시키고 구축해 가도록 지원해주면 성공적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이끌 수 있다고 한다. 내게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3기 과정 하나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고 크고 작은 도전들을 가능하게 해 주었던 비계가 아니었나 싶다.

너무 힘들고 길었지만 돌아보면 짧은 여정에서 넘어질 때마다 따스한 손을 내밀어주고 격려해주던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우리 롤링에그팀을 비롯한 3기 29명 모두에게 무한 감사와 애정을 보낸다. 아울러, 열정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과분한 교수님들, 밝은 미소와 세심하고 감동적인 배려로 한 학기를 눈부시게 빛내준 스텝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이제 나는 이전과는 분명 다른 길로 새롭게 나아갈 것이다.

그 동안의 추억과 감사, 도전과 열정이 오래오래 가슴에 남아서 내가 하는 일의 거름이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멋진 여정을 만들어 줄 것임을 나는 믿는다.

오래 오래.





ASAN
FRONTIER
ACADEMY











The Asan Nanum Foundation



“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수료하시는
여러분께 올립니다.
”

정진홍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이봉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원장



축하드립니다.

힘든 일, 힘든 시간을 다 마치셔서 가벼우시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몸과 마음이 다 활가분하시겠습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저도 마음이 가볍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처럼 힘든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좋습니다.

까닭인즉 분명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펼칠 세상이 어제보다 밝고,

그제보다 따듯하고,

그 이전보다 바를 것이 환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습니다.

저는 제 손자에게 말할 겁니다.

세상은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분들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께 삼가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정진홍



먼저 6개월간의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늘 수료하게 되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3기 수료생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1세기는 제3섹터인 비영리 분야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회발전에 비영리 분야의 역할이 결정적인 시기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영리 분야의 역량이 한 사회의 역량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비영리 분야의 발전은 결국 그 분야의 사람의 역량이 좌우한다는 믿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가 우리나라 비영리 분야의 인적자원 개발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비영리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비영리 분야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을 꼭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사회적 책무성은 비영리 분야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가치와 원칙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기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두 발은 현장에 굳게 두되 시야는 전 지구를 향하십시오. 글로벌한 시각을 키우십시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변방 국가가 아닙니다. 아시아를 대표하고 세계를 무대로 인류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활동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적 사고를 키우십시오. 비영리 분야야말로 혁신적 사고와 실천이 중요하고 또 가능한 곳입니다. 현실에 바탕을 두되 혁신을 통한 창조와 미래를 지향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 번 수료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원장 이봉주

홈페이지
www.asan-nanum.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TheAsanNanum

블로그
blog.naver.com/asan_nanum

